

격려사

현재 총정사가 소재하고 있는 남산은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을 때, 백성에게 편안함을 주고 어려운 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무학대사를 모신 국사당을 설치하여 봄가을로 국가적 제사를 모시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국사당은 인왕산으로 옮겨지고 남산 일대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들과 신사(神社)들의 거점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총정사 자리는 그 당시 헌병대 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조선 백성들의 아픔이 서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총정사가 갖는 현시대의 의미와 역할은 더욱 선명해 진다고 할 것입니다.

초대 주지 도윤스님과 예비역 장성 불자회는 이곳 총정사에서 호국불교의 염원을 다져오며 정진의 마음을 쉬지 않아 왔습니다. 그간의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고를 고스란히 이어서 명원스님이 제2대 주지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격려와 치하의 마음을 전하며 총정사가 한층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 정신의 휴식처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5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